

시조 태사공 영정 제작 추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

정관의 회장 추대 관련 조항 일부 개정하기로 심의



2022년도 제2차 상임위원회가 10월 14일(금) 대중회 3층 회의실에서 권해옥 대중회 회장을 비롯하여 권영익 수석부회장, 권경서 상임부회장, 권건중 상임부회장, 권주연, 권오돈, 권정택, 권영하, 권오중 상임위원, 권혁창 감사, 권오상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상임위 안건은 시조 태사공의 영정 제작 건과 파종회장협의회에서 제안한 정관 개정 건에 대한 심의 사항이다. 회의 순서는 개회선언, 시조 태사공에 대한 망배, 대중회 업무현황 보고, 회장 인사말씀, 심의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권해옥 회장은 인사말에서 원거리에서 참석해 건강하게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오늘 이 행사는 파종회장협의회에서 정관 개정을 건의하여 안건을 상임위에 상정하게 되어 개최하게 되었다. 또한 시조 태사공 영정 제작 문제는 안동권문의 숙원과제이자 역사적 과업이다. 진지하게 심의하시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지난 3월 1일자 종보(제561호)에 시조 태사공 화상과 한시에 대해 특별 기고했던 권홍섭 고문은 40여 전에 태사공(太師公)의 화상(畫像)이 그려진 극초서체 한시(漢詩) 유고(遺稿)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獨隱水聲裡(독은수성리)
홀로 물소리 속에 은거하고 있으니
昌亭無熱時(창정무열시)
창정에서는 더운 때를 모를러라
客來因月宿(객내인월숙)
빈객이 찾아오면 달 밝은 정자에서 쉬며
床勢向低持(상세향저지)
침상은 높은 곳에 마련하였지

*오언절시(五言絶詩)로서 평성지운(平聲支韻)이다.
*극초(極草)로 활달하게 쓰였는데 만년(晩年)의 한가(閑暇)하심이 엿보인다.

瀛洲薄無出(영주박무출)
영주에 흥년이 들어 소출이 없으므로
整兩春馬促(정량춘마촉)
수레를 정비하여 봄 말을 재촉했네
田事倩婁伯(전사청누백)
농사일은 누백에게 모두 맡기고
罷官貧官還(파관빈환복)
관직에서 물러나니 청빈으로 돌아섰네

*오언절시(五言絶詩)로서 축성옥운(仄聲沃韻)으로 옥운(屋韻)과 통운(通韻)하였다.

나라에 흥년(凶年)이 들어 소출(所出)이 없으므로 봄에 말을 재촉하여 어려움을 돌보시고 휴퇴(休退)하시고는 청한(淸寒)함이 엿보인다. 이 시는 율시(律詩)가 아니다. 절시(絶詩) 두 수(首)를 연달아 쓰시고 끝에 고창(古昌) 권행(權幸) 서(署)라고 기록하였는데 서(署)자는 서(書)자와 같이 본인을 표시한 서명(署名)이다.

첫 번째 시(詩)는 한가한 가운데 자유분방하시고 두 번째 시(詩)는 재직 시에 준군기를 맞아 기민(饑民)을 위해 진휼(賑恤)하신 광경과 청빈(淸貧)하게 지내심을 잘 표현하였다.

이 작품이 친필(親筆)이라고 확신(確信)함은 만일 대필이라고 가정한다면 끝 구절의 파관빈환복(罷官貧還復)의 복(復) 자 앞에 지운 글자는 그냥 두지 않고 깨끗하게 고쳐 놓

았을 것이나 공(公)의 친필(親筆)이므로 대범하게 잘못된 글자를 그냥 지우고 말았으며 성명 또한 극초(極草)로 쓰셨으니 만일 대필(代筆)이라면 감히 그렇게 쓰지 못했을 것이다.

권오창 화백은 시조 태사공 영정 제작에 대해 회장님께서 여러 번 연구실을 찾아와 부탁했다.

지금까지 주로 타성씨 선조들에 대한 영정을 100여 점 제작했는데 안동권씨 선조들은 1점도 없었다. 안동권문의 후손으로서 선조들에 대한 표준영정 제작이 숙원사업이었는데 마침 오늘 오후 14시에 권율 도원수 국가표준 영정에 대한 3번째 심의가 열린다. 통과되면 정식으로 국가표준영정으로 등록된다. 시조 태사공 영정 제작도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시조 태사공이 살았던 시대와 신분과 복식 등에 대해서 유물 등을 참고하고 또 보관을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해야 규격이 정해지니 자문회의를 거쳐 절차를 밟아 최선을 다해 그리겠다. 죽은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ند며 영정 제작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상임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영정 제작에 동의했다. 서기(西紀) 2022년이자 권기(權紀) 1093년, 시조 태사공 영정 제작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역사적 결정에 따라 안동권문의 추원보본의 역사적 과업이었던 시조 태사공 영정 제작은 대중회와 권오창 화백 등 실무진을 구성하여 추진될 전망이다.

파종회장협의회에서 건의한 정관 개정안에 대해서는 열띤 토론을 거친 끝에 일부 개정하기로 의결하였다. 정관 개정(안) 대비표는 다음과 같다.

현 정관	개정(안)
제10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회장은 임원 10인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와 중무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서 추천하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0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회장은 임원 30인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와 중무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서 추천하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3조 (총회) ④ 총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15일 전까지(발송일 기준) 회의 목적과 일시를 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총회) ④ 총회의 소집은 총회개최일로 부터 1개월 전, 회장추대를 다루는 총회는 개최일로부터 3개월 전 발간되는 종보에 회의 의안과 일시 및 장소, 회장 임후보자의 등 록사항을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 대한 가부 결정을 위해서는 임시총회 소집이 필요하나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고 소요되는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하여 상임위원, 부회장, 이사, 중무위원 등 임원에게 서면 결의로 진행할 예정이다.

권행완 편집국장

권해옥 회장 제69사단 권율부대 방문 격려



권해옥 대중회 회장은 10월 6일(목) 11시 제60사단을 방문하여 백자성 장군을 비롯한 장병들을 위문하고 격려했다.

이날 방문은 안동권씨 대중회와 제60사단 권율부대가 우의를 돈독히 하고 친목을 다지기 위해 권율부대 army festival에 맞춰 백자성 사단장이 초청한 것이다. 대중회에서는 권해옥 회장을 비롯하여 권영하 부회장, 권순영 국민의원 고양시 갑 당협위원장, 권오상 사무총장과 권행완 편집국장이 참석했다.

권해옥 회장은 부대 명칭을 권율부

대로 정하고 권율도원수를 연구하여 부대정신까지 권율정신으로 삼고 권율 부대인으로서 자긍심과 보람을 가져줘서 대단히 고맙다. 또한 임진왜란 당시 바다에는 이순신장군, 육지에는 권율도원수다. 그런데 기념행사의 격차는 너무 심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행주대첩제 기념행사를 국가행사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백자성 사단장은 나라를 구한 권율장군의 위업을 전 부대원이 푹푹 뭉쳐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권해옥 회장은 100만원을 격려금으로 전달했다.

권행완 편집국장

10월 찬조금 및 임원 회비 납부 내역

〈찬조금 : 관복 도포 제작비용〉	
권웅열 고문	11,829,000
〈종보 발전 기금〉	
권홍섭 고문	500,000
이 사	
권광훈(영주)	300,000
중무위원	
권양호(봉화)	200,000

합계 : 12,829,000원
※ 순서는 납부 순입니다.

안동권씨대종회

2022년 始祖 太師公 秋享祭 案内

2022년도(權紀 1093년) 시조 태사공과 낭중공 추향제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족친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일 시 : 2022년 11월 10일(목), 오전 10시

♣ 장 소 :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393 (능동재사 일원)

○ 연락처 : 서울 02-2695-2483~4 / 안동 054-854-2256

※ 추향제에 참석하지 못하는 종중이나 단체의 제수성금은 향사 전용계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협 301-0268-6817-11, 예금주: 안동권씨대종회)

안동권씨 대중회 회장 권해옥